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ㄱ, ㄷ, ㅂ/ 발음 교육 방안

—한국어 음절 구조를 중국어 음절 구조에 반대로 적용하여—

이은주·우인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어려워하는 종성에 대한 발음 교수방법을 제안한다. 중국어에는 음절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이 /n, ng/밖에 없고 이 또한 결합 제약이 있어 중국 학습자들은 모국어에 없는 종성을 발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중국어와 한국어 음절 구조의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중국어 음절 구조에 역으로 적용하여 발음하는 방법을 연습한 후 그 다음으로 한국어 음절구조만을 이용하여 종성/ㄱ, ㄷ, ㅂ/를 발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 단어 중 한국어 초성 /ㄱ, ㄷ, ㅂ/와 유사한 /g, d, b/가 각각 초성과 종성에서 반복되는 단어인 哥哥[gege], 弟弟[didi], 爸爸[baba]를 활용하여 파열음인 초성/ㄱ, ㄷ, ㅂ/과 불파음인 종성/ㄱ, ㄷ, ㅂ/의 발음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초성과 종성 발음의 차이를 반복 훈련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 /ㄱ, ㄷ, ㅂ/ 발음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음절 구조의 차이, 종성 발음, 역으로, 불파음, 발음 교수법

* 제1저자 : 이은주(선문대학교 한국학과), 교신저자 : 우인혜(선문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 서론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목표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에 우선한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학습자가 잘못된 발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거나 큰 장애를 겪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애가 지속되는 학습자는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꺼리게 되므로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의 향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힘들어 하는 종성 발음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종성이라 함은 음성형으로서의 음절말 자음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대상 발음은 음절 말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의 종성이며, 대상 학습자는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 학생 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중국 학생을 위한 발음 연구이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는 개별 음소의 발음, 음운 현상의 적용, 초분절적 요소의 실현 등 대상 항목의 범위가 넓다. 그 가운데 이 논문이 종성발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음에 비해 자음을 어려워하며, 그중 종성 발음을 익히는 데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¹⁾ 중국어에는 음절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 n, ng /밖에 없고 이 또한 결합 제약이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에 없는 종성을 발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종성은 초성과 형태는 같지만 음가가 달라서 별도의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의 초성의 음가 /ㄱ/와 ‘악’의 종성음가 /ㄱ/은 다르기 때문에 ‘악’을 발음할 때 [아그]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중의 한국어 교재에서 음가의 구분을 어떻게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가, 또 음가가 어떻게 다르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김병운(199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에 대한 연구에서 음절말 /ㅂ, ㄷ, ㄱ/를 발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마다 종성의 표기 방법이 다르며, 초성과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재가 없어 학습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한국어 학습 초반에 잘못 학습된 발음의 화석화로 발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과 한국의 대학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를 비교하여 발음 표기법과 설명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중국어에는 없는 발음인 한국어의 종성 /ㄱ, ㄷ, ㅂ/의 발음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두 언어 간의 음절구조를 대조한 후 한국어 음절구조를 중국어 음절 구조에 역 적용하여 발음하는 방법을 통해 음절 구조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모국어의 음절 단위에 대한 인식이 강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모국어의 음절 경계를 수정하게 하여 모국어와 다른 음절 구조로 발음하는 방법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이 방법은 듣고 따라 하는 방식만으로는 종성 조음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초급 학습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수업에서 배운 발음 방법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연구방법

2.1. 선행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정(1999), 이경희·정명숙(1999)은 단순히 교사의 발음을 듣거나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발음 교육에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정확히 발음해도 외국인 학생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교육적 효과를 얻기 힘들

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의 음운론적 지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장향실(2002)은 발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한국어 음운론뿐만 아니라 학습자 모국어에 대한 음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동일한 모국어 화자 집단을 대상으로 교수할 때,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오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교육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국어권 화자를 위한 발음 교육 논문으로 최금단(2001)과 양순임(2003)의 논문을 주목할 수 있는데 최금단(2002)는 중국인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가 음소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두 언어 간 음소에 대한 대조연구와 변이음에 대한 음성학적 분석을 하고 있다. 양순임(2003)은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유기음화와 관련된 교수 방안과 그에 따른 연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지혜(2005)는 종성발음의 교육에 주목을 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화 실험을 통하여 종성오류를 분석한 후 폐쇄음과 비음의 오류가 많음을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 모형을 구안했다. 양순임(2005)도 종성의 음가가 초성과는 별도의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성체계 내 대립에 기초한 교육과 모국어 정보를 활용한 교육을 주장했다. 각 종성을 변별할 수 있는 음성 자질과 초성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와 영어, 일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방향옥(2009)은 중국인 학습자가 오류를 많이 겪는 종성발음으로 /ㅇ/을 들면서 한국어교재에서 종성 발음/ㅇ/에 대한 발음교육의 방법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화 실험을 통하여 종성/ㅇ/발음의 오류 환경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교사가 중국어의 /ŋ/과 모음이 결합되는 환경의 발음 습관을 파악하여 이를 한국어에 대응시키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상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논문을 검토한 바, 한국어 발음 교육의 방법으로 교사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고 여겨

진다. 그보다는 학습자 모국어에 대한 음운론적 지식을 파악하여 대조분석을 통해 오류를 예측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나 모국어의 간섭현상을 역으로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판단된다.²⁾

그러나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발음을 할 때 모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부정적 전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적 차이를 활용한 한국어종성 /ㄱ, ㄷ, ㅂ/의 발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2.2. 이론적 배경

L2 습득 과정에서 L1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대조분석론자들은 L2 습득 과정에서 L1의 요소들이 L2에 전이할 것이라고 믿고 그중 부정적 전이를 간섭 현상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중국어 모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로 발생하는 간섭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Lado(1957)은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음성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습자의 모국어에 없는 음소가 목표어에 존재할 경우에 학습자는 그 새로운 음소를 알아듣는 데에 곤란을 느끼고 발음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³⁾

2) 허유라·박덕유(2012)는 통합 한국어 교재가 발음원리 및 설명 부분이 부족하므로 ‘분석적-언어적 접근법’을 통해 발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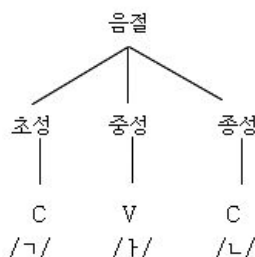
3) Lado(1957)은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음성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학습자의 모국어에 없는 음소가 목표어에 존재할 경우 학습자는 그 새로운 음소를 알아듣는 데에 곤란을 느끼고 발음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모국어와 비슷한 음소라고 여겨지는 목표어의 음소가 음성

본 연구에서는 Lado(1957)가 말한 것처럼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에는 없는 음소인 한국어 중성발음을 학습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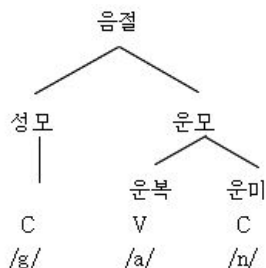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대조

3.1. 한국어와 중국어 음절 구조의 대조

음절의 구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소릿값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운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음절을 인식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그림 1]이 아닌, [그림 2]와 같이 2분지의 구조로 인식하고 발음하게 된다.



[그림 1] 한국어의 음절 구조



[그림 2] 중국어의 음절 구조

적으로 차이를 지닌 변이음(Variations)을 가지고 있을 때 학습자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셋째, 모국어에서는 단일음소인데 목표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음소가 될 때에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국어와 목표어에 있어서 서로 같은 음이라고 하더라도 이 둘의 소리가 나는 환경이 같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음의 청취와 발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즉 한국어의 초성은 중국어의 성모로 인식하고 한국어의 ‘중성+중성’의 결합은 중국어의 운모로 인식한다. 결국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초성을 발음할 때 중국어의 성모의 간섭, ‘중성+중성’을 발음할 때 중국어의 운모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음절구조의 조합 형태를 살펴보면 한국어의 음절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 ① V(모음) : 아, 야, 오, 요
- ② VC(모음+자음) : 압, 읊, 움
- ③ CV(자음+모음) : 가, 나, 다, 라, 마
- ④ CVC(자음+모음+자음) : 각, 간, 갑, 갈, 감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는 성모가 항상 운모 앞에 오고 이것이 다시 뒤의 운모와 결합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 음절 구조의 기본 형식은 C(V)V(V/C)이다. 이를 풀어서 전개하여 중국어의 가능한 음절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이원, 2010).

[표 1] 중국어 음절 구조

음절 유형		단어 예	성모	운모			
				운두	운복	운미	
			C	V	V	V	C
1	v	鵝 [é] 거위			e		
2	vv	愛 [ài] 사랑하다			a	i	
		也 [yě] ~도		i	e		
3	vvv	外 [wài] 밖		u	a	i	
4	vc	昂 [áng] 오르다			a		ng
5	vvc	圓 [yuán] 둥글다		ü	a		n
6	cv	媽 [mā] 엄마	m		a		
7	cvv	好 [hǎo] 좋다	h		a	o	
		家 [jiā] 집	j	i	a		
8	cvvv	快 [kuài] 빠르다	k	u	a	i	
9	cvc	深 [shēn] 깊다	sh		e		n
10	cvvc	黃 [huáng] 노랗다	h	u	a		ng

한국어의 중성과 종성은 각각 독립되어 있고 자유롭게 결합하여, 발음할 때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어의 운모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여 ‘성모-운모’의 구조에서 운모는 한국어의 중성과 종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두 언어 화자의 발화 인식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평소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음절구조의 발화 환경에 의해 표출된 음은 쉽게 알아들을 수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게 된다.

[표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

한국어		중국어	
음절구조	예	음절구조	예
V	아	V	一 [yī]
GV	야	VV	五 [wǔ]
없음		VVV	要 [yào]
CV	가	CV	古 [gǔ]
CGV	겨	CVV	考 [kǎo]
없음		CVVV	鳥 [niǎo]
VC	앞	VC	音 [yīn]
GVC	역	VVC	元 [yuán]
CVC	각	CVC	生 [shēng]
CGVC	격	CVVC	見 [jiàn]

음절핵으로 나타나는 복모음의 경우 한국어는 최대 이중모음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중모음, 삼중모음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모음의 경우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음절구조의 끝소리에서 큰 차이를 보여서 중국어에서는 비음 자음 /n, ng/ 이외의 자음들은 성모로서 음절 처음에만 오고 음절 끝에는 올 수 없다. 또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한국어의 끝소리를 발음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2. 한국어와 중국어 종성의 대조

한국어의 자음 중에서 종성으로 날 수 있는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일곱 개인데 표준 중국어에서 종성 자음으로 가능한 것은 /n, ng/의 두 가지이다. 즉, 한국어 종성/ㄱ, ㄷ, ㄹ, ㅁ, ㅂ/의 발음은 중국어에는 없는 발음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어 음절의 종성 소리를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표준 중국어에서 종성 자음으로 가능한 것은 /n, ng/의 두 가지의 경우에도 결합할 수 있는 모음에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모든 단모음이 종성 /ㄴ/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단모음 /a, e, i, ü/4개만 가능하며 이중모음의 경우도 한국어는 /-ㄴ/을 제외한 모든 이중모음이 /ㄴ/과 결합하나 중국어는 /ian/, /uan/, /üan/, /uen/4개뿐이다.

중국어/ng/의 경우에도 한국어에서는 모든 단모음이 종성/ㅇ/과 결합할 수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a, o, e/3개만 결합할 수 있다. 이중모음의 경우도 한국어는 /-ㄴ/을 제외한 모든 이중모음이 /ㅇ/과 결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iang/, /uang/, /ieng/, /ueng/, /iong/5개만 가능하다.

발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국어 종성 /ㄱ, ㄷ, ㅂ/의 발음은 개방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불과음이어서 초성에 비해 변별 인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3. 대조를 통해 예상되는 발음의 오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초급의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종성에 대하여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중국어에는 음소 또는 음절 층위에서 불파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종성 발음 중 특히 불파음에 대하여 발음 방법을 익히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셋째,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똑같은 형태의 자음이지만 초성일 때와 종성일 때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발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익숙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종성 발음 교수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4. 종성 발음의 발음 오류실태

4.1. 실험 개요

앞의 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와 음운 구조에 대해 대조·분석하였다. 3장에서 예상한 대로 중국인 화자가 한국어 종성 특히 불파음 발음에서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지와 오류가 나타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서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초급, 중급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발화 실험은 2013년 5월~6월, 순천향대학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녹음기를 사용하여 발화자가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녹음을 했다.

중국인 피험자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6개월 미만의 초급 수준의 학습자

군과 한국어 학습 경험이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인 중급 수준의 학습자군의 두 부류로 나누었다. 피험자들은 특정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표준 중국어 발음 화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 초급수준 중국인 학습자 정보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	한국어 학습기간	수업 급수
1	LXY	여	20	중국 산둥성	4개월	1급
2	YTT	여	20	중국 산시성	4개월	1급
3	XMY	여	20	중국 장수성	4개월	1급
4	PYY	여	19	중국 장수성	4개월	1급
5	QZ	여	21	중국 안휘성	4개월	1급
6	LKY	남	20	중국 하북성	4개월	1급
7	YRR	남	20	중국 흑룡강성	4개월	1급
8	WHY	남	19	중국 안휘성	4개월	1급
9	WPP	남	20	중국 산둥성	4개월	1급
10	WK	남	21	중국 산시성	4개월	1급

[표 4] 한국어 중급수준 중국인 학습자 정보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	한국어 학습기간	수업 급수
1	ZWY	여	23	중국 천진시	1년 4개월	3급
2	LQN	여	21	중국 장수성	1년 4개월	3급
3	SJJ	여	20	중국 안휘성	1년 4개월	3급
4	FQD	여	21	중국 하남성	1년 4개월	3급
5	WDD	여	20	중국 하남성	1년 4개월	3급
6	MJM	남	21	중국 산시성	1년 4개월	3급
7	LGE	남	20	중국 산둥성	1년 4개월	3급
8	PZQ	남	22	중국 산둥성	1년 4개월	3급
9	GS	남	21	중국 산둥성	1년 4개월	3급
10	LT	남	22	중국 요녕성	1년 4개월	3급

4.2. 실험 내용

한국어 중성 발화 실험은 7중성 받침을 포함한 단음절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인 학습자가 단음절 단어를 읽고 필자가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발화자에게는 단순한 실수와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발화하도록 했다. 실험의 목적이 중성 발음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초성이나 중성의 오류는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단음절 단어만을 제시했다. 선정한 단음절 단어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단음절 단어

강	달	밖	감	돈	금	안	굴	옷	말
있	학	중	끝	검	눈	쌀	공	각	낮
밥	꽃	몸	숲	인	막	곤	입	앞	턱

위 [표 5]에서 단음절 단어만 선택한 이유는 음운변화로 인한 오류는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실험 목적인 중성 발음의 오류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4.3. 실험 결과

4.3.1. 초급과 중급 학습자 오류율

아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급 군 학습자들이 /ㄱ, ㄴ, ㄷ, ㅂ/ 등의 중성 발음은 잘 파악하여 오류율이 20% 아래로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ㄱ, ㄴ, ㄷ, ㅂ/의 받침을 단음절 단어에서 잘 인지하고 발음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산’과 ‘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 볼 수 있는 단모음이 /a/와 중성/ㄴ/과 결합 시 오류가 없는 반면 중국어 발음에서는 결합하지 않는 ‘돈’을 발음하는 경우 받침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6]은 초급 군이 단음절 중성에서 나타낸 오류율이다.

[표 6] 초급 군 단음절 중성발음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강	10%	달	30%	밖	40%	감	0%	돈	20%
잎	10%	학	30%	중	0%	끝	50%	검	10%
밥	0%	꽃	30%	몸	0%	숲	10%	안	0%
금	10%	인	0%	굴	30%	옷	50%	말	20%
눈	30%	쌀	10%	공	30%	각	60%	낮	50%
막	40%	곤	40%	입	10%	앞	20%	턱	50%

위 [표 6]에서 오류가 생기는 단음절 중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인 것은 받침/ㄷ/과 /ㄱ/으로 오류율이 30-60%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불파음을 발음할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불파음에 대해 특별지도를 해야 할 부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래 [표 7]에서 중급 학습자의 경우 역시 초급 군에 비해서는 오류율이 낮은 편이지만 불파음/ㄱ/과 /ㄷ/에서 30-40%의 오류율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중성 발음보다는 비교적 높은 오류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중급 군 단음절 종성발음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단어	오류율
강	0%	달	0%	밖	30%	감	0%	돈	10%
있	10%	학	30%	중	0%	끝	40%	검	10%
밥	0%	꽃	10%	몸	0%	숲	20%	안	0%
금	20%	인	0%	굴	10%	옷	30%	말	10%
눈	10%	쌀	10%	공	0%	각	40%	낫	20%
막	30%	곧	30%	입	0%	앞	20%	턱	40%

위 [표 7]의 결과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종성 발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는 중급 군 학습자라 할지라도 종성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에서 교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⁴⁾

4.3.2. 오류의 형태

허용·김선정(2006)은 한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가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 음소의 발음에서 오는 차이, 모국어와 학습 대상언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 상이한 음운 현상이나 초분절적 요소의 차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음운 변화와 초분절적 요소에 의한 오류들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초급 학습자로 대상을 한정 지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오류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회피

4)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의 수가 초급군 10명, 중급군 10명으로 많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이 원(2010), 리우동위(2013)의 논문에서 종성 /ㄱ, ㄷ, ㅂ/의 오류율은 종성 /ㅂ/이 가장 낮았고, 종성 /ㄷ/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여기에서 제시한 오류율이 통계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에 의한 발음 오류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꽃’은 [꼬]로, ‘턱’은 [터]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어에는 한국어와는 달리 받침에서 폐쇄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종성에 있는 폐쇄음 특히 /ㄷ/의 발음을 어렵게 느껴서 이런 발음 회피전략을 취한 결과다.

또한 전이에 의한 발음 오류 양상을 보였는데 초급, 중급 학습자 단음절 실험 결과를 보면 종성 /ㄴ/과 /ㅇ/을 혼동하여 /ㄴ/을 /ㅇ/으로 전이하는 오류를 범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돈’을 발음할 때 일부 학습자들은 [동]으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안’을 발음할 때 모든 학습자들이 오류를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어에 ‘안’과 비슷한 운모 [an]이 있지만 ‘운’의 음가와 가장 가까운 운모가 [ong] 밖에 없어서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국어교재 발음 표기법과 설명

5.1. 한국어 교재의 종성발음 표기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교육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간된 교재와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발간된 교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발음에 대한 부분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모를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분석의 기준으로 초성과 종성의 발음 표기법과 발음 방법의 소개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과 중국에서 출간된 교재를 보면 음가의 표시 방법이 초성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ㄱ/과 ‘악’의 /ㄱ/은 다른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음가의 표기 방법이 같다는 것은 파열이 이루어지는 초성소리/

ㄱ/과 다음소리인 장애음의 종성 /ㄱ/의 발음이 같다는 것으로 이것은 올바른 음가 표기 방법이 아니다.

아래 [표 8]은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통합교재에서 볼 수 있는 받침 발음 표기를 정리해 본 것이다. 여기서 표기된 음가는 소릿값을 말하는 것이다.

[표 8] 한국어 교재 내 받침 발음 표기법

한국어 종성	A교재 ⁵⁾		B교재 ⁶⁾		C교재 ⁷⁾		D교재 ⁸⁾	
	초성 표기법	종성 표기법	초성 표기법	종성 표기법	초성 표기법	종성 표기법	초성 표기법	종성 표기법
ㄱ	k	없음	k	k	g	k	k(g)	k
ㄴ	n	없음	n	n	n	n	n(n)	n
ㄷ	t	없음	t	t	d	t	t(d)	t
ㄹ	l	없음	l	l	r	l	r(l)	l
ㅁ	m	없음	m	m	m	m	m(m)	m
ㅂ	p	없음	p'	p	b	p	p(b)	p
ㅇ	ŋ	없음	없음	ŋ	ng	ng	ŋ(ng)	ŋ(ng)

위 [표 8]에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초성과 종성을 유사하게 표기하고 있다. A교재의 경우 초성 발음법은 제시되어 있으나 종성발음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B교재의 경우는 종성의 발음 표기가 종성/ㅂ, ㅇ/을 제외하고는 초성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C교재의 경우도 종성 /ㄱ, ㄷ, ㄹ, ㅂ/을 제외하고는 같은 발음으로

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발간한 『한국어1』의 예비편 발음교육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6)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연세한국어1』의 예비편 발음교육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7)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에서 발간한 『한국어 초급1』의 예비편 발음교육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8)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韩国语1』 1과-10과까지의 발음 교육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표기되어 있다. D교재의 경우는 초성 발음 표기 옆에 괄호를 두어 중국어의 유사발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중성 표기법에 있어서는 중성/ㄹ/을 제외하고는 초성과 같은 발음 표기를 하고 있다. 표기가 같으면 엄연히 다른 소릿값을 가질지라도 학습자들은 당연히 같은 소릿값으로 잘못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도 다른 소릿값에 대해서는 다른 표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5.2. 한국어 교재의 중성 발음 방법 설명

한국에서 발간된 한국어교재를 살펴보면 중성의 목록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음 방법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다. 한국어 초성에 나타나는 자음이 중성에 다시 쓰이지만 이때의 소리 변화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 전적으로 교사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D교재에는 유사한 중국발음과의 비교를 결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발음 방법을 기술하고 있어 언어권별 교재로서의 장점을 보인다.⁹⁾ 요즘은 한국에서 출판되는 한국어교재의 추세가 언어권별로 발간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언어권별 발음방법의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표 9]¹⁰⁾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의 경우 받침은 목록과 단어만 제시되어있을 뿐 발음 방법에 대한 기술은 없다. 음가를 통해서만 발음법을 제시하고 읽기연습을 통해 발음교육을 대체하고 있다. 한국어는

9) 『韩国语1』p.22, 韻尾ㅇ与漢語中ng音相似, 因而對於中國學生來說比較易于模仿: 받침ㅇ은 중국어ng와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학생들에게는 모방이 비교적 쉬운 발음이다.

10) 자료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출판물과 중국 출판물을 비교한 것은 한국 출판물 중에 한국어로 발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교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 수업 현장에서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어 기초 발음을 배울 때 중국어로 발음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들을 많이 구해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 기초발음의 설명이 필요함과 동시에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발음방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초성에 쓰이는 자음이 종성에 다시 쓰이는데 이때의 소리의 변화를 처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다르며, 어떤 방법으로 발음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의 부재로 정확한 발음을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설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독학 학습자의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발음의 차이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음절 말에 오는 받침소리는 한국어에 비해 훨씬 제약적이어서 학습자에게 낯선 음의 발음 방법을 교재에 모국어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표 9] 한국어 교재 내 받침 발음 방법 설명

한국어 종성	A교재	B교재	C교재	D교재
	발음방법 설명	발음방법 설명	발음방법 설명	발음방법 설명
ㄱ	없음	없음	없음	있음
ㄴ	없음	없음	없음	있음
ㄷ	없음	없음	없음	있음
ㄹ	없음	없음	없음	있음
ㅁ	없음	없음	없음	있음
ㅂ	없음	없음	없음	있음
ㅇ	없음	없음	없음	있음

학습자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교사가 한국어로만 설명해야 하는 경우는 초급 학습자에게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교사의 발음을 들려주고 따라하게 하는 과정은 고전적이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만으로 한국어를 막 시작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기대하기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교재에 학습자 언어로 발음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폐쇄음이 음절의 종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초성에서 발음할 때와 달리 폐쇄 후 파열의 과정이 없다. 그래서 이를 ‘불파’라고 한다.

장애음의 중성 음가에 대한 기술로 조음 위치와 폐쇄방법, 개방 단계가 실현되지 않는 닫음소리이면서 초성에 비해 조음체의 접촉 면적이 넓은 조음부 긴장음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성 /ㅂ/ 발음법

초성 자음과 모음을 발음 후 두 입술을 붙여서 폐에서 나오는 기류를 막는데 이때 두 입술을 긴장시켜 초성보다 접촉면적이 넓게 한다.

이 발음은 중성/ㅁ/을 연습한 후에 익히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중성/ㅁ/과 조음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초성 자음과 모음을 발음한 후에 입을 다무는 과정까지는 중성/ㅁ/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소리를 발음할 때는 비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발음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만으로 중성/ㅂ/발음을 유도할 수 없다. 특히 한국어로만 설명을 해야 할 경우라면 정확한 이해를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중성 /ㄷ/ 발음법

혀끝을 윗잇몸 부분에 접촉시켜서 공기를 막았다가 폭발되어 나오는 소리인 초성 /ㄷ/소리와 달리 혀끝을 치경에 붙여서 폐에서 나오는 기류를 막는다. 혀끝을 긴장시켜 초성보다 접촉면적이 넓게 함을 주의한다.

이 발음 역시 내파음인 관계로 소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은 들리는 소리로 발음 방법을 추측할 수 없어 정확한 음가를 배우기 힘든 발음이다.

3) 중성 /ㄱ/ 발음법

이 소리는 혀와 연구개의 상호작용으로 비강 통로를 막으며 내는 소리이다.

거의 모든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발음이 바로 종성 /ㄱ/이다. 이 조음과 관련한 근육의 이동을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음이 다른 언어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리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발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원리를 안다고 해도 이 전에 혀와 연구개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근육을 제어해 본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이 그 원리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6. 중국어 발음을 이용한 종성발음 교육

한국어의 종성에서 자음으로 날 수 있는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로 일곱 개인데 중국어에서 종성 자음으로 가능한 것은 /n, ng/의 두 가지이다. 따라서 종성 /ㄴ, ㅇ/을 제외한 발음이 올 경우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¹¹⁾ 또 그 이외에는 자음만 한국어의 종성에 오는 반면에 중국어의 음절에서는 단모음인 /i, u, o/도 운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한국어 음절의 종성 소리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에서도 장애음 종성 발음인 /ㄱ, ㄷ, ㅂ/의 발음은 개방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발음이어서 초성에 비해 변별 인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발음에 대한 원리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중국어 발음을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따라 발음해 보는 교수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는 목표어의 발음을 듣고 무조건 따라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조음 방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체계를 이해하고 모국어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

11) 오선화(2011)는 흘받침 발음 중 ‘ㄴ’, ‘ㅇ’은 중국어의 ‘n’, ‘ng’과 비슷하여 중국 학생들한테는 쉬운 발음이고 ‘ㄷ’, ‘ㄱ’은 어려운 발음이라고 했다.

이다.

왕단(2011)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관한 요구조사 실시 결과 학습자의 60%가 모국어와 목표어와의 대조를 통해 발음 방법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발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를 대조하여 학습자의 머릿속에 두 언어의 차이를 인지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 음절 구조에 역으로 적용한 교육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6.1. 중국어 음절구조에 역으로 활용한 한국어 발음교육

6.1.1. 종성 /ㅂ/ 발음 방법

앞서 살펴 본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성 /ㄱ, ㄷ, ㅂ/의 발음 중 가장 오류율이 낮은 것은 종성 /ㅂ/이다. 그 이유는 양순음인 초성 /ㅂ/을 발음 할 때와 불파음인 종성 /ㅂ/을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의 변화가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이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종성 /ㄷ, ㄱ/ 발음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입모양의 변화가 가시적인 종성 /ㅂ/교육을 제일 먼저 하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두 음절 단어 중 두 음절에 모두 발음 /b/ 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을 이용하여 훈련시킨다. 중국어 단어의 두 번째 음절 발음의 마무리 단계에서 모음을 발음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장애음 종성의 발음을 연습하게 한다. 이때 첫 번째 /b/ 는 파열음으로 발음하지만 두 번째 /b/ 는 불파음으로 연습하여 초성과 종성의 발음이 다름을 인식시킨 후 한국어 종성 /b/과 유사한 발음을 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방법이다.¹²⁾

12) 이 때 사용되는 중국어는 초성과 종성이 같은 음가인 것을 사용하여 초성과 종성

예를 들면 중국어 爸爸 [baba]를 이용한 종성/ㄷ/의 연습 방법을 소개하면 중국어 발음/baba/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파열음 /b /와 모음 /a/ 발음을 한 뒤에 또다시 파열음 /b/를 발음하기 위해 /ba/발음을 한 후 벌려진 두 입술을 급속히 붙여 폐쇄시켜야만 가능한 원리를 이용한 발음법이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음절/ba/발음은 상하의 두 입술이 맞붙어서 공기를 차단시킨 후, 열리면서 공기를 파열시키면서 발음한 후, 두 번째 [b]를 발음하기 위해 재빨리 두 입술을 다물어서 기류를 막게 되는데 이때 막힌 기류를 뿜어 내지 않는 연습을 하면 한국어 종성발음 /ㄷ/과 유사하게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爸爸 [baba]칠판 판서 형식

중국어	한국어
爸爸 [baba] - [ba-ba]	[ba-b-a] ⇒ [ba-b] ⇒[bab]

위 [표 10]에서 칠판에 판서를 할 때는 소리가 나는 음가는 진하고 굵게 판서하거나 색깔을 달리하여 판서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발음에 어떤 차이가 있음을 추측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발음의 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발음을 판서한 몸짓과 함께 판서한 발음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발음하면 된다. 아래 [표 11]은 그러한 몸짓과 발음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 같은 표기이지만 소릿값이 다름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 발음 /b/이에 알맞은 단어로 爸爸 [baba], 趑趔 [bobo] 등의 단어를 이용할 수 있다.

[표 11] 뽀뽀[baba] 몸짓을 이용한 발음 방법 설명

	발음 단계	소리값	발음방법 설명	발음 원리
뽀뽀 [baba]	중 국 어 1 ↓	/ba-ba/ /뽀-바/	/ba- ba/를 한 음절 한 음절 끊어 읽는다	상하의 두 입술을 맞붙여 공기를 차단 ⇨ 다시 벌리면서 공기를 파열시키면서 발음 ⇨ 두 번째 [b]를 발음하기 위해 두 입술을 다물어서 공기를 차단 ⇨ 다시 입술을 떼면서 공기를 파열시키면서 발음
	2 ↓	/ba-ba/ /뽀-바/	첫 번째 음절/ba/ 는 소리를 내어 발음하고 두 번째 음절/ba/ 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시늉만 한다.	두 번째 [b]를 발음하기 위해 재빨리 두 입술을 다물어서 공기를 차단 ⇨ 다시 입술을 떼지만 불과
	3 ↓	/ba-b /뽀-압/	첫 번째 음절/ba/ 는 소리를 내어 발음하고 두 번째 음절 중 /b/까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시늉한다(/a/모음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b]를 발음하기 위해 재빨리 두 입술을 다물어서 기류를 막음
	4	/bab/ /뽀/	1-2-3단계를 빠르게 다시 연습한다.	첫 번째 [b]는 파열음이지만 두 번째 [b]는 불파음

6.1.2. 중성 /ㄷ/ 발음 방법

혀 끝을 윗잇몸 부분에 접촉시켜서 공기를 막았다가 폭발되어 나오는 소리인 초성 /ㄷ/소리와 달리 혀 끝을 치경에 붙여서 폐에서 나오는 기류를 막는다. 이 발음 역시 내파음인 관계로 소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은 들리는 소리로 발음 방법을 추측할 수 없어 정확한 음가를 배우기 힘든 발음이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두 음절 단어 중 두 음절에 모두 발음/d/ 가 들어간 중국어 弟弟[didi]의 발음을 이용하여 훈련시키되 단어의 두 번째 음절 /d/발음의 마무리 단계에서 모음을 발음하지 않

는 연습을 통해 무성성 종성의 발음을 연습하게 한다.¹³⁾

[표 12] 弟弟 [didi] 칠판 판서 형식

중국어 弟弟 [didi] - [di-di]	한국어 [di-d-i] ⇒ [di-d] ⇒ [did]
----------------------------	------------------------------------

/d/발음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발음의 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발음을 판서한 몸짓과 함께 판서한 발음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발음하면 된다. 몸짓과 발음 방법은 아래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3] 弟弟 [didi] 몸짓을 이용한 발음 방법 설명

	발음 단계	판서	발음방법 설명(몸짓과 발음)	발음 원리
弟弟 [didi]	중 국 어 1 ↓	/di-di/ /따-디/	/di- di/를 한 음절 한 음절 끊어 읽는다	혀를 치경에 붙여 공기를 차단 ⇨ 다시 벌리면서 공기를 과열시키면서 발음 ⇨ 두 번째 [d]를 발음하기 위해 재빨리 혀를 치경에 붙여 공기를 차단 ⇨ 다시 혀를 떼면서 공기를 과열시키면서 발음
	2 ↓	/di-di/ /따-디/	첫 번째 음절/di/ 는 소리를 내어 발음하고 두 번째 음절/di/ 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시늉만 한다.	두 번째 [d]를 발음하기 위해 혀를 치경에 붙여 공기를 차단 ⇨ 다시 혀를 떼지만 불과 (시늉만)

13) 초성과 종성의 음가가 /d/인 단어로는 弟弟[didi] 외에도, 滴答 [dida] 등의 의성어를 이용하여 종성 발음/ㄷ/을 연습할 수 있다.

3 ↓	/di-d/ /따- /	첫 번째 음절/di/ 는 소리를 내어 발음하고 두 번째 음절 중 /d/까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시늉한다 (/i/모음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d]를 발음하기 위해 혀를 치경에 붙여 공기를 차단
4	/did/ / /	1-2-3단계를 빠르게 다시 연습한다.	첫 번째 [d]는 과열음이지만 두 번째 [d]는 불과음

6.1.3. 중성 /ㄱ/ 발음

중국어의 /g/는 연구개와 설근이 붙지 않지만 한국어의 중성 /ㄱ/은 연구개와 설근이 빠르게 밀착되어 성문이 폐쇄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두 음절 단어 중 두 음절에 모두 발음/g/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을 이용하여 훈련시킨다. 중국어 단어의 두 번째 음절 발음의 마무리 단계에서 모음을 발음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불과음 중성의 발음을 연습하게 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 哥哥 [gege]를 이용한 중성/ㄱ/의 연습 방법을 소개하면 중국어 발음 [gege]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과열음 /g/와 모음 /e/ 발음을 한 뒤에 또다시 과열음 /g/를 하기 위해서는 /ge/ 발음을 한 후 열려 있는 연구개와 설근을 급속히 붙여 폐쇄시켜야만 가능함을 이용한 발음법이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음절 /ge/ 발음은 후설을 위로 들고 설근을 연구개에 접근시켜 기류를 막았다가 막힌 기류를 뱉어내면서 발음한 후 두 번째 [g]를 발음하기 위해 재빨리 다시 후설을 위로 들고 설근을 연구개에 접근시켜 기류를 막게 되는데 이때 막힌 기류를 뱉어내지 않는 연습을 하면 한국어 중성발음 ‘ㄱ’와 유사하게 된다.¹⁴⁾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哥哥 [gege]외에도 呱呱[guagua], 喀喀[kaka], 布谷布谷 [bugubugu] 등의 의성어를 이용하여 중성 발음/ㄱ/을 연습할 수 있다.

[표 14] 곱곶 [gege] 칠판 판서 형식

중국어	한국어
곶곶 [gege] - [ge-ge]	[ge-g-ε] ⇒ [ge-g] ⇒ [geg]

/g/발음도 교시는 학생들에게 발음의 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발음을 판서한 몸짓과 함께 판서한 발음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발음하면 된다. 몸짓과 발음 방법은 아래 [표 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5] 곱곶 [gege] 칠판 판서 형식

	발음 단계	소리값	발음방법 설명	발음 원리
곶곶 [gege]	중 국 어 1 ↓	/ge-ge/ /까-거/	/ge- ge/를 한 음절 한 음절 끊어 읽는다	혀뿌리를 연구개에 밀착시켜 공기를 차단 ⇨ 다시 벌리면서 공기를 과열시키면서 발음 ⇨ 두 번째 [g]를 발음하기 위해 혀뿌리를 연구개에 밀착시켜 공기를 차단 ⇨ 다시 떼면서 공기를 과열시키면서 발음
	2 ↓	/ge-ge/ /까-/	첫 번째 음절/ge/ 는 소리를 내어 발음하고 두 번째 음절/ge/ 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시늉만 한다.	두 번째 [g]를 발음하기 위해 혀뿌리를 연구개에 붙여 공기를 차단 ⇨ 다시 떼지만 불파 (시늉만)
	3 ↓	/ge-g/ /까-억/	첫 번째 음절/ge/ 는 소리를 내어 발음하고 두 번째 음절 중 /g/까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시늉만 다(ε/모음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g]를 발음하기 위해 혀뿌리를 연구개에 붙여 공기를 차단
	4	/geg/ /꺃/	1-2-3단계를 빠르게 다시 연습한다.	첫 번째 [g]는 과열음이지만 두 번째 [g]는 불과음

6.2. 한국어 종성 /ㄱ, ㄷ, ㅂ/ 발음 연습

위와 같이 한국어 음절 구조를 중국어 음절 구조에 적용하여 발음하는 연습을 통해 한국어 종성 발음의 구조를 인지하게 한 후에는 한국어 단어를 통해 종성 /ㄱ, ㄷ, ㅂ/를 연습하게 한다.

6.1.1. 종성 /ㅂ/ 발음 연습

밥 [ㅂ-ㅏ-ㅂ] ⇒ [바 - ㅂ] ⇒ [밥]

법 [ㅂ-ㅓ-ㅂ] ⇒ [법 - ㅂ] ⇒ [법]

‘밥’은 먼저 [바]를 발음하게 한 후 받침[ㅂ]를 발음하면서 입을 빨리 다물게 하면 [바압]이 되는데 이것을 한 음절로 발음하면 [밥]이 되는 것을 연습한다.

6.1.2. 종성 /ㄷ/ 발음 연습

달 [ㄷ-ㅏ-ㄷ] ⇒ [다 - ㄷ] ⇒ [달]

덜 [ㄷ-ㅓ-ㄷ] ⇒ [덜 - ㄷ] ⇒ [덜]

‘달’은 먼저 [다]를 발음한 후에 받침[ㄷ]를 발음하고 혀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1초 정도 정지하게 한다. 이것을 좀 더 빨리 발음하여 [덜]을 연습한다.

6.1.3. 종성 [ㄱ] 발음 연습

각 [ㄱ-ㅏ-ㄱ] ⇒ [가 - ㄱ] ⇒ [각]

꼭 [ㄱ-ㅓ-ㄱ] ⇒ [고 - ㄱ] ⇒ [꼭]

‘각’은 먼저 [가]를 발음한 상태에서 받침[ㄱ]를 발음하면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숨을 1초간 멈추어 혀가 내려오지 못하게 유지시키면 [가악]이 된다. 이것을 더 빨리 하면 [각]이 되어 한 음절로 발음할 수 있다.

7. 맺음말

이 글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 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힘들어 하는 종성 발음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는 개별 음소의 발음, 음운 현상의 적용, 초분절적 요소의 실현 등 대상 항목의 범위가 넓다. 그 가운데 이 논문에서 특히 종성발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음에 비해 자음을 어려워하며, 그중 종성 발음을 익히는 데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에는 없는 발음인 한국어의 종성 /ㄱ, ㄷ, ㅂ/의 음가를 발음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중국어 음절 구조에 역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 음절구조만을 이용하여 종성/ㄱ, ㄷ, ㅂ/를 발음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수업시간 외

에도 수업에서 배운 발음 방법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발음 습득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 버린 학습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음을 습득하게 하기보다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한 훈련이 초성과 종성 발음의 차이를 인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종성 /ㄱ, ㄷ, ㅂ/ 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한국어 초성과 종성은 서로 다른 음가이므로 표기법에서 다르게 표기되어야 하나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는 차별 없이 표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종성발음만의 다른 표기 방법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둘째, 정확한 발음의 인지를 위해 발음 방법에 대한 모국어 설명이 교재에 소개되어야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제안했으며, 셋째로는 발음을 배울 때 교사가 아무리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여도 모국어에 없는 발음은 인식이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교사의 입모양이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교육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ㄱ, ㄷ, ㅂ/ 의 발음 교육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그 방법으로 중국어를 활용한 2 단계의 훈련법을 제안했다. 먼저 1단계로 한국어 음절 구조를 중국어 음절 구조에 역으로 적용하여 음절구조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중국어 단어 중 한국어 초성 /ㄱ, ㄷ, ㅂ/와 유사한 /g, d, b/가 각각 초성과 종성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파열음인 초성 /ㄱ, ㄷ, ㅂ/과 불파음인 종성 /ㄱ, ㄷ, ㅂ/의 발음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했다. 또한 중국어 哥哥[gege], 弟弟[didi] 등 한 단어에 반복 출현하는 /g, d/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혀가 연구개나 치경에 붙어 폐에서 나오는 기류를 막는 것을 활용하여 종성 /ㄱ, ㄷ/을 발음하는 훈련 방법을 제안했다. 중국어 爸爸[baba]중 두 번째 [ba]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벌어진 두 입술을 급속히 붙여 폐쇄시켜야 함을 이용하여 한국어 종성/ㅂ/을 발음하게 하였다. 2단계로는 앞서 연습한 불파음의 발음을 한국어로만 연습하게 하였는데 초성과 종성이 /ㄱ, ㄷ, ㅂ/인 음절을 중심으로 한국어 종성 발음 방법을 연습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초성과 종성 발음의 차이를 반복 훈련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 /ㄱ, ㄷ, ㅂ/을 발음함에 있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개별 음소의 발음, 음운 현상의 적용, 초분절적 요소의 실현 등 보다 폭 넓은 발음 영역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와 다르게 제안한 발음 교육 방안이 실제로 타당한지 검증을 위한 실험 과정이 없다는 것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발음 교수 방법에 대해 교사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논의의 기초로 삼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6), 『한국어 초급1』, 서울 : 경희대학교출판국.
- 김병운(1999),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및 지도”,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제6호, 89-107.
- 김선정(1999), “영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0-2호, 153-169.
- 김지혜(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리우동위(2013), “음절 구조의 차이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양상과 교육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연(2004),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초분절 음소 발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향옥(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ㅇ/ 발음 교육 방안”, 『인문학연구』(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회) 제37호, 389-410.
- 배주채(2008), 『국어음운론의 체계화』, 서울 : 한국문화사.
- 백문식(2005), 『우리말 표준 발음 연습』, 서울 : 박이정.
- 북경대학교 문화연구소(2006), 『韓國語1』, 중국 : 민족출판사.
- 서목삼·엄익상(2005), 『표준 중국어 음운론』, 서울 : 한국문화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한국어1』, 서울 : 문진미디어.
- 손현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문창어문논집』(문창어문학회) 제47호, 235-266.
- 안연희(200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임(2003), “유기음화와 관련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제22호, 223-238.
- 양순임(2005), “한국어 음절 종성의 발음 교육”,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117호, 493-519.
- 양순임(2006), “중국인 학습자 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 163-183.

- 오선화(2011), “중국어 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발음 내용 분석과 교육 방안”, 『2011국제학술대회논문집』(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7-308.
- 왕단(2011), “중국의 한국어교재 발음기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제30호, 257-296.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1), 『연세한국어 1』,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경희 · 정명숙(1999),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파열음의 발음 및 인지 교육”,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0-2호, 233-255.
- 이 원(2010),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중성 발음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한국어학회) 제15호, 211-227.
- 최금단(2002a), “중국어와 한국어의 변이음 대비연구 : 중한 파열음을 위주로”, 『중국어학연구』(한국중문학회) 제25호, 221-262.
- 최금단(2002b),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제 20호, 309-343.
- 최금단(2002c), “중국어와 한국어의 자음 대조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금단(2004),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음 접근방법”, 『한국학논집』(계명대학교한국어학연구원) 제13집, 215-232.
- 허용 · 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서울 : 박이정.
- 허유라 · 박덕유(2012),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제90호, 363-388.
- 北京大學(1997), 『標準韓國語1』, 중국 북경 : 북경대학교 출판부.
- 崔義秀(2006), 『初級韓國語 上』, 중국 연변 : 연변대학교 출판부.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bstract

A Study on an Educational Plan for the Pronunciation of the Final Consonants /ㄱ, ㄷ, ㅂ/ in Korean for Chinese Korean Learners

—By applying the syllable structure of Korean to that of Chinese reversely—

Lee, Eun-joo·Woo, In-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method to teach the pronunciation of final consonants, with which Chinese Korean learners especially have a difficult time due to the differences in syllable structur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ince only /n, ng/ can come at the end of a syllable and there are restrictions to their combinations in Chinese, it is difficult for Chinese learners to pronounce the final consonants not found in their mother tongue. The method involved Chinese learners practicing to apply the syllable structure of Korean to that of Chinese for pronunc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differences in the syllable structure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then pronounce the final consonants /ㄱ, ㄷ, ㅂ/ only by using the syllable structure of Korean. The Chinese learners naturally recognized differences between the plosive initial sounds /ㄱ, ㄷ, ㅂ/ and the unreleased final consonants /ㄱ, ㄷ, ㅂ/ through 哥哥[gege], 弟弟[didi], and 爸爸[baba] where /g, d, b/ similar to the initial sounds /ㄱ, ㄷ, ㅂ/ in Korean were repeated at the initial and final position. If Chinese learners train themselves to learn differences in pronunciation between the initial and final sounds in a repetitive way according to the method proposed in the study, they will develop confidence in the pronunciation of the final consonants /ㄱ, ㄷ, ㅂ/ in Korean.

Key words : the differences in syllable structure, pronunciation of final consonants, reversely, the unreleased final consonants, method to teach the pronunciation

이은주 : 충남 아산시 방축동 동아나래1차 101동 908호 / lej7086@hanmail.net

우인혜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전문로 221번길 70 전문대학교 본관 201B / 6019woo@hanmail.net

접수일자 : 2013. 10. 30. / 심사일자 : 2013. 11. 29. / 게재 확정 일자 : 2013. 12. 10.